

영적훈련

■ 제 12 강 끈기 있는 훈련 (250409)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훈련하되 어떤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일년 내내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을 훈련해야만 한다. - 마틴 로이드 존스

1. 경건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

- 1.1. 경건한 사람은 () 사람
 - 1.1.1. 긴급한 일의 횡포: 지난 세대보다 여가시간이 현저하게 감소
 - 1.1.2.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던 분(막 3:20)
 - 1.1.3.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음 → 영적훈련은 한가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
- 1.2. 경건한 사람은 () 사람
 - 1.2.1. 바쁜 중에도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에 충실했던 분(마 14:23)
 - 1.2.2. 영적훈련을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 1.3. 영원한 가치를 진 “경건”을 위한 훈련은 계속되어야 함(딤후 4:8)
 - 1.3.1. 올바른 방법으로 (), 포기하지 말고 ()!
 - 1.3.2. 끈기 있는 훈련을 위한 세 가지 자원

2. ()의 도움

- 2.1. 성령께서 경건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심(빌 2:13)
 - 2.1.1. 자연인의 상태로는 경건에 대한 열망을 갖지 못함
 - 2.1.2.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롬 8:29)
 - 2.1.3.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빌 1:6)
- 2.2. 성령께서 끈기 있게 경건을 훈련하게 하심
 - 2.2.1. 사탄은 성도들이 경건을 위한 영적 훈련을 포기하게 함
 - 2.2.2. ()하는 마음을 주셔서 훈련을 감당하게 하심(딤후 1:7)
 - 2.2.3. ()하는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으시는 열매(갈 5:23)

3. ()의 도움

- 3.1.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지는 함의
 - 3.1.1. 신약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교제(요일 1:3)
 - 3.1.2. 아마도 ()의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관계
 - 3.1.3. 성도는 이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감
- 3.2.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주는 유익
 - 3.2.1. 정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 사교적인 모임 + () 삶의 나눔
 - 3.2.2.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음(엡 4:16)
 - A.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를 골고루 나누어 주심

- B. 상호 보완하고, 자극하여 서로를 돕게 하심
- C.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지체들을 통해 이루는 한 몸으로 비유
- 3.2.3. 당연히 사탄은 성도를 ()시키고, 성장하지 못하게 함(히 10:25)

“교제란 자신의 영혼에 힘과 신선함과 교훈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 알리신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 J. I. 패커

4. 수고와 싸움

- 4.1.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계속 영적 훈련을 해 가도록 해야 함
 - 4.1.1. 누구라도 영적인 진보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음
 - 4.1.2. 어떤 특정한 경험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가르침을 조심
 - 4.1.3. 경건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을 다해 ()해야 함(딤후 4:7-8)
 - 4.1.4. 신인협력설: 성령의 ()와 우리의 ()은 함께가야 하는 것(골 1:29)
- 4.2. 영적인 싸움은 필연적
 - 4.2.1.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름(갈 5:17)
 - 4.2.2.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싸움
 - 4.2.3. 이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갈 6:8)

5. 결론

- 5.1. (): 영적인 훈련을 위한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음
 - 5.1.1. 훈련 외에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음(딤후 4:7)
 - 5.1.2.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듯, 경건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
 - 5.1.3. 경건하려면 더 바빠질 것을 각오해야 함
- 5.2. (): 승리를 경험하려면 영적 훈련을 끈기 있게 해 가야 함(벧후 1:6)
 - 5.2.1. 가장 현실적인 지침은 () 일어나, () 시작하는 것!
 - 5.2.2.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옴(롬 14:12)

"훈련"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불쾌한 말이 되었습니다. 대신 자발성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훈련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달걀을 주우러 나간 농부와 같습니다. 그는 뜰을 지나 닭장으로 가다가, 펌프가 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고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었고, 와셔를 교체해야 했기에, 그는 와셔를 가지러 헛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건초 더미가 엉켜 있는 걸 보고서는, 그것부터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이번엔 쇠스랑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쇠스랑 옆에 걸려 있는 빗자루를 보니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시내에 가면 빗자루 손잡이를 꼭 사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결국 이 농부는 달걀을 줍거나, 그가 하려고 했던 다른 어떤 일도 끝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정말 즉흥적이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훈련되지 않은 자발성의 포로인 셈입니다. 사실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훈련은 자발성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필수 조건입니다.